



제1764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월 6일 (음력 11월 18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6(土)	7(日)
눈비 1/3°C	구름 많음 -4/1°C

News

- 후대전화 보조금 축소 ②
- 변형통의 2007 희망도약 ③
- 최경주 첫날 공동 1위 ⑯



Jeollado

- 그 사람-김동환 前광주시장 ⑦

Entertainment

- 방송3사 신년 드라마 격돌 ⑧
- 영화 '오래된 정원'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시금치 ⑯



## 시험에 선거까지… 이·통장 인기

'최근 열렸던 우리 연산동의 축제 이름은?' '유달산의 높이는?' 최근 목포시 연산동에서 이례적인 시험이 치러졌다. 통장 2명을 뽑기 위해 치러진 이 시험의 수험생은 1개 통에 5명씩 모두 10명. 최종 합격자는 면접까지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끌어야 했다.

연산동 관계자는 "통장을 뽑는데 시험을 치른 것은 전남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라며 "경쟁자가 많아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마을마다 이·통장이 되려는 입지자가 줄을 이으면서 연산동처럼 시험을 치르거나, 아래 선거를 통해 '미술의 심부름꾼'을 뽑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를 통해 이장을 선출한 구례군이다. 구례군의 정치 1번지로 통하는 봉동리는 구립 20일 주민 직접 선거를 통해 이장을 선출했다. 30년 만에 처음 치러진 이장 선거에서는 후보 3명의 사진과 공약 등이 담긴 벽보까지 등장했다.

연산동처럼 시험을 치려는 이·통장은 선출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다. 목포에서는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이·통장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추세다.

3~4년 전만 해도 기관대상이었던 이·통장 직이 이처럼 인기작으로 떠오른 것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갑절 이상 오른데다, 사회활동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이·통장은 지난 2003년 까지 만해도 매월 10~12만 원대에 불과한 수당만을 지급받아왔다.

행정기관과 일선 주민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갈수록 줄어드는 공무원을 대신해 각종 통계조사와 홍보활동을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수당이 기본급과 회의참석비 포함 매월 24만 원대로 급등 가량 늘면서 이·통장 자리가 '선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일부 시·군에서도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중·고생 자녀 장학금과 벤치마킹 차원의 선진지 견학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경쟁률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사회활동을 통해 생활의 가치와 보람을 찾으려는 이들이 급증하는 것도 이·통장직에 대한 인기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여성들의 이·통장 진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이·통장 8천89명 가운데 남성은 84.6%인 6천841명 그리고 여성은 15.4%인 1천248명이다. 언뜻 보아선 여성의 절대적으로 적은 것 같지만 지난 2000년 당시 여성 이·통장이 600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장에 진출한 여성은 6년 만에 배가 늘어난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사회참여 의지가 활성화된 여성들이 이·통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여성 이·통장이 나온 미들에는 1~2천만 원 정도의 주민 속원사업비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기피 대상 옛말 입지자 몰려

### 수당 오르고 학자금 지원 등

### '대접' 달라져 선망 대상으로

## "北 추가 핵실험 준비 끝났다"

ABC 보도 "1차 실험 장소서 사람·차량 움직임 지속 포착"

### 정부 "특별한 징후 없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ABC방송이 미 국방 관리의 말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이 방송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애고나 경고 없이 실험을 할 모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정보기관들이 아직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이들이 하고 있는 준비들이 지난해 10월 9일 첫 번째 핵실험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 전에 취했던 조치들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두 명의 고위 국방 관리들도 최근의 침보가 북한이 다시 핵무기 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풍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1차 핵실험 장소에서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지만 핵실험과 관련된 '특별징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10월9일) 핵실험을 실시한 곳으로 의심되는 시설 주변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부 분명치 않은 활동이 식별돼 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직결된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오늘 소한…광주·전남에 큰 눈

주말인 6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도 뚝 떨어져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6일 오후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다.

특히 이번 눈은 추위를 몰고 와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6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오전부터 전남 서남해안 일부지방에 풍랑 및 강풍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주 후반까지 일주일 정도 이어진 뒤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시 남구 구소동 이명수(51)씨 가족  
이 5일 비밀하우스에서 재배한 '한라봉'  
을 수확하고 있다. '한라봉'은 오렌지와 귤의 짙침만을 모아 만든 휴전과일. 이씨가  
재배한 '한라봉'은 제주산보다 당도가 50% 기량 높아 3kg 한 박스에 3만원선에 출하  
된다.

## 목재가공산업의 새이름



는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 조합의 전통브랜드입니다.



CJ CGV

목재가공사업 조합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 조합

전남 목재가공사업 조합

광주 목재가공사업 조합

목재가공산업의 모든 것 "자이리"  
이전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 것을  
"자이리"와 함께하세요!

### 자이리 사업분야

- 가구설계(사무실, 침실)
- 교구사업
- 목재제작사업
- 목재주택사업
- 목재가공업
- 목재수출업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 조합  
대표전화 062-337-5535  
팩스 062-334-5536